【P1-17】

전주시 초등학생들의 비만실태 및 비만판정법에 따른 체성분조사

정수진*, 차연수
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

Study difference of Anthropometric values according to obesity assessment and frequency of obesity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Jeonju City

Su-Jin Jung*, Youn-Soo Cha
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, Chonbuk National University, Jeonju, korea

소아비만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근까지도 아동 및 청년기 비만을 판정하는 적당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신체계측을 통한 성인기준의 BMI수치를 적용한 비만판정법으로 초등학생들의 비만률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시 6개교 초등학생들 4-6학년 544명(남학생 :307명, 여학생 :237명)을 대상으로 생체전지저항방법을 이용한 신체계측 및 체성분을 조사하고 다양한 비만판정법에 의한 비만실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비만판정법에 따른 체성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.

BMI백분위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률은 21.3%(남학생 : 21.9%, 여학생 : 20.7%)로 조사되었고, RI(뢰러지수)법은 과체중 및 비만률이 17%(남학생 : 16.1%, 여학생 : 18.2%)로 조사되었다. 또한, 바이오임피던스 방법을 이용한 체지방(%)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률은 39%(남학생 :45%, 여학생 :31.6%)였으며, WHR방법에 의한 비만률은 21.0%(남학생:18.9%, 여학생:23.6%)로 조사되었다. 체지방(%)법에 의한 비만률은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WHR법에 의한 비만률은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. BMI백분위값은 WHR법과 유사하게 조사되었고, 뢰러지수법과 비교 시 높은 비만도를 보였다. 또한 생체임피던스방법을 이용한 비만판정률은 BMI백분위값을 이용한 방법과 비교시 높은 비만도를 나타내었다. 비만판정법에 따른 체성분 조사는 BMI백분위법과 뢰러지수법은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체중, 근육량, 체지방량, WHR ,체지방률 및 BMI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. 그러나 체지방률법에서 근육량은 남학생의 경우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, 여학생의 경우는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.

전주시 초등학생들의 과체중 및 비만률은 약 20-30%이상으로 대도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. 따라서 초등학교 정상체중 어린이들도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향후 성인비만과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적인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급증하는 소아비만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.